

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개막식 연설

존경하는 조석래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회장,

그리고 아·태 지역 경제 지도자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양경제협의회 제36차 총회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각국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36년 동안 아·태 지역의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PBEC의 공헌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PBEC이 출범한 1967년 당시만 해도 베트남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가 냉전의 중압감에 짓눌려 극도의 대립과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평화와 협력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암울한 상황에서 PBEC은 태동했습니다. 아·태 지역의 미래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해안과 확신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확신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태 지역은 전 세계 GDP의 62%와 교역의 4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심무대입니다. 역내 기업들간의 교류와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한

국만 해도 전체 무역의 70% 가까이가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구·자원과 같은 이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협력의 여지 또한 무한합니다. 아·태 지역은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고 정치와 경제의 발전 단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다양성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는 상호 발전을 위한 보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협력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민간 경제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힘은 경제협력에서 나오고 그 주역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PBEC이 APEC의 토대가 되었는데,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와 안보,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이어져 평화와 번영의 아·태 시대를 꽃피울 것입니다.

한국은 PBEC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아·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역내 기업간의 투자와 교역, 자원개발과 기술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PEC은 물론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태 지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일·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제국주의와 냉전 시대에는 불리한 위치였지만 이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4대국의 큰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광양항 같은 물류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

으로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인적자원과 정보화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앞당기는 '평화와 번영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사람과 상품, 자본과 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나라!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와 R&D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회계와 지배구조에서부터 시장의 경쟁질서와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경제, 투명하고 공정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과 활력이 숨쉬는 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내외국인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경쟁력만이 성패를 가름할 것입니다. 경쟁력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라도 성공을 거둘 것이고, 이런 기업과 함께 한국 경제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천과 부산·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는 의료·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문

화는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는 노사관계만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노사 관련 법과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것입니다. 이제 곧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적어도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짚모자는 거울에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북한 핵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동북아 지역을 화해와 개방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됩니다. 아·태 지역의 협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가 21세기의 조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실현되고 나아가 세계의 질서로 확산되기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저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PBEC과 아·태 지역의 눈부신 발전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미 우리는 ‘아·태 경제공동체’ 라는 꿈을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해 가고 있습

니다. 그 하나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입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체결된 첫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뒤져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태 경제공동체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PBEC 출범 당시의 확신과 비전을 갖고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21세기를 평화와 번영의 태평양 시대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이번 총회의 큰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즐겁고 보람 차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